

The Future of Retirement

지금 이 준비할 때!



설문 배경

- 금번 설문 프로젝트는 HSBC Insurance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 온 은퇴설계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본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는 전세계 1억2천8백만명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HSBC Insurance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고객들의 각 성별 및 연령별 그룹이 가진 요구와 바람에 맞는 혁신적인 재무솔루션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방법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 중 가장 방대한 규모의 조사로서, 전세계 4개 대륙 15개국 대상으로 실시

-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한 성인 대상, 노후에 대한 태도 조사
- 데이터 취합 방법: 온라인
- 설문대상: 30세~70세 사이 15,000명 응답자
- 대상국가: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홍콩, 인도, 일본, 멕시코,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 리서치회사: 키케로컨설팅(Cicero Consulting)
** 키케로 컨설팅(Cicero Consulting)은 선두적인 재무 컨설팅사로 영국 및 브뤼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은퇴 설계 및 연금 분야의 이론 리더 및 시장 개발이 전문 분야이다.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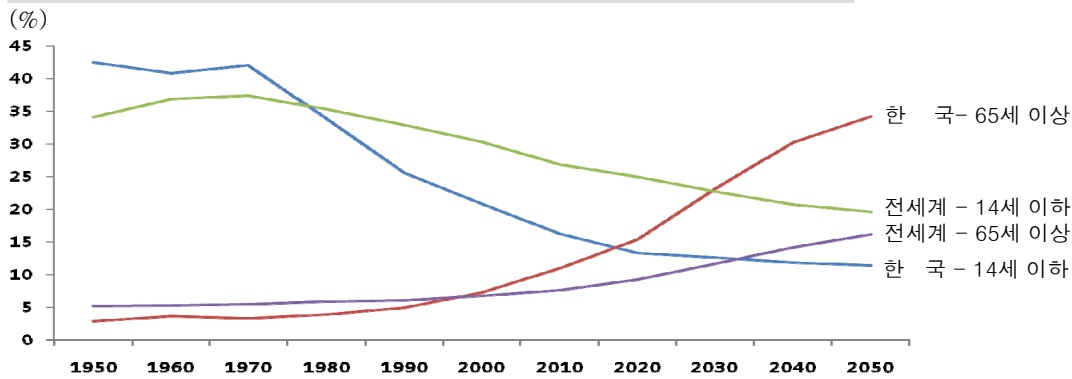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및 인구 구성비율에 대한 전망
- 은퇴준비에 대비한 정부역할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
- 은퇴준비에 대한 중대한 준비성 격차 등장(Preparedness gap)
- 경기불황에 대한 시각 및 개인의 대처방안의 차이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전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구분포상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향후 40년 동안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달할 것으로 UN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 사회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에 접어들게 되면 부양을 받는 성인의 수가 부양을 받는 아동의 수를 처음으로 추월하게 되며, 2050년에는 65세 인구의 비율이 3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세 이하와 65세 이상, 세계 및 한국 인구 비율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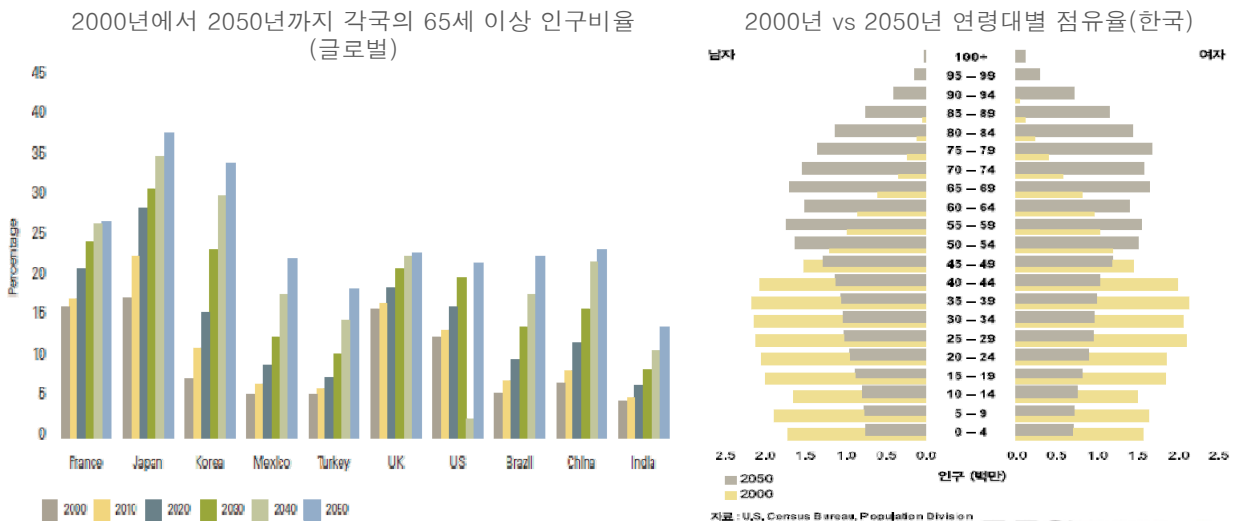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인구 구성비율 변화 전망

2000년부터 2050년까지 인구구성비율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2000년 기준 30대-40대 사이가 인구분포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50대-70대 사이가 인구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인구분포에 따라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로 인해 은퇴 생활 자금 마련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50까지 인구구성의 변화 전망



자료: U.S. Census Bureau, Population Division

정부역할에 대한 선호도 차이

사회가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인구 노령화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본 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의 수입원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이 제시되었을 때, 글로벌 기준 23%, 한국사람들의 52%가 노년까지 더 오래 일을 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에서는 개인들에게 저축을 더 많이 하도록 권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글로벌 기준 31%가 이를 통해 추가적인 저축을 하여 은퇴에 대비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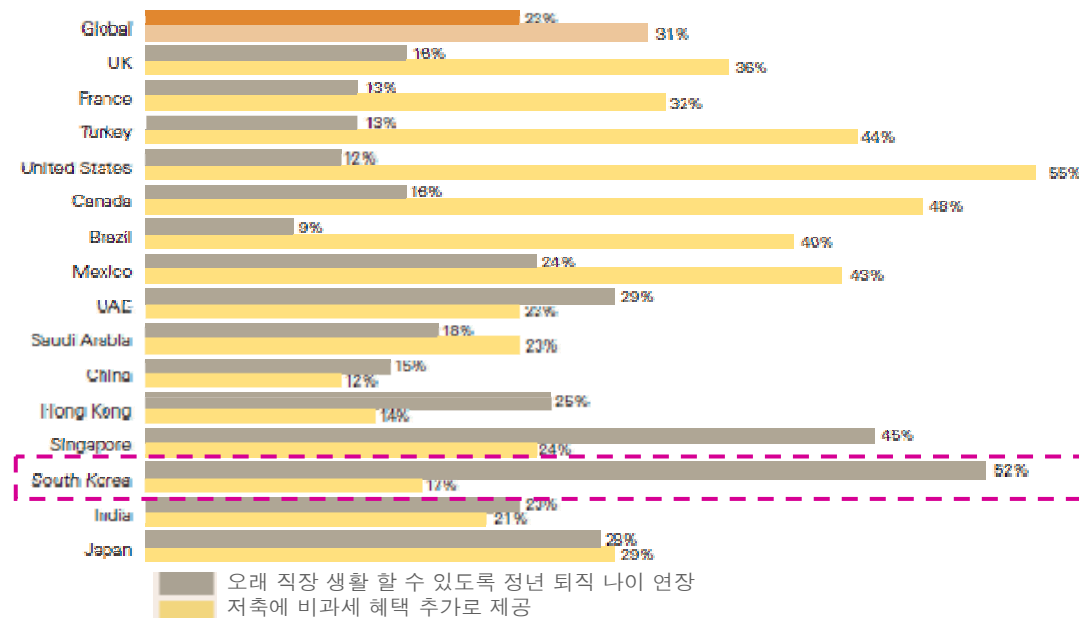
인구노령화 대비 정부의 은퇴준비역할에 대한 국가간 견해의 차이



출처: HSBC Future of Retirement Research 2009

이번 조사자료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국가마다 은퇴준비에 대해 매우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은퇴를 늦추고 좀 더 오래 일한다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유럽과 북미 사람들은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더 준다면, 노년을 위해 저축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당히 대조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년연장과 비과세혜택부여를 통한 추가적인 저축에 대한 지역적인 견해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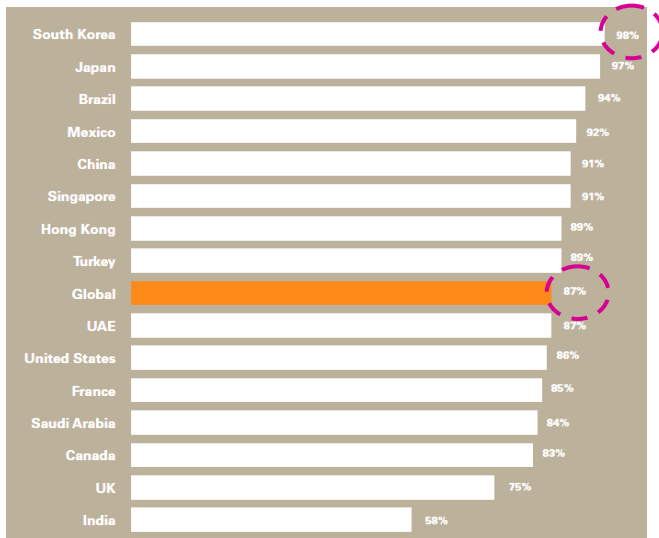
출처: HSBC Future of Retirement Research 2009

은퇴준비의 중대한 준비성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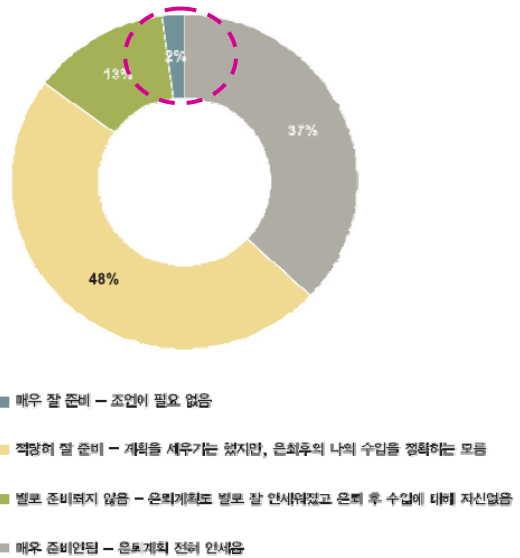
은퇴에 대한 준비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번 2009년 설문 조사에 참여한 모든 국가 중에서 한국인들이 은퇴에 대한 준비가 가장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9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자신의 은퇴준비가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응답자 중 **2%**만이 은퇴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일본과 더불어 한국은 이번 글로벌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 중 은퇴 생활에 대한 준비가 가장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은퇴준비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 (글로벌 13% vs 한국 2%)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자 비율의 국가간 차이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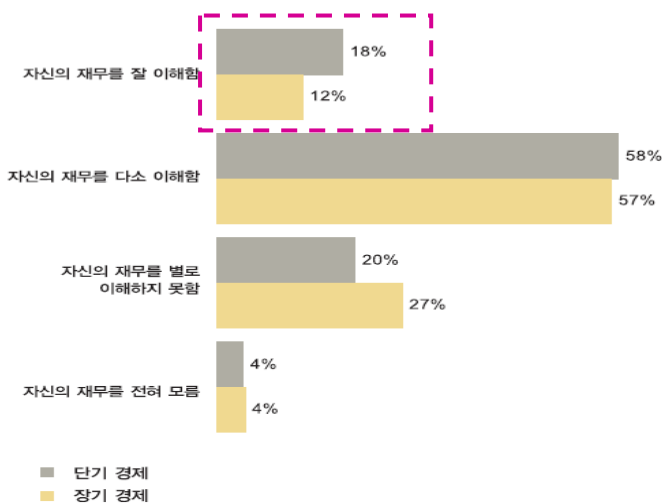


은퇴 준비수준(한국)



출처: HSBC Future of Retirement Research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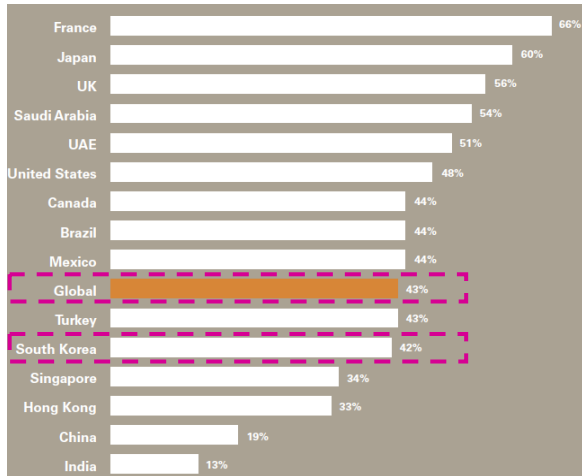
한국인이 은퇴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



출처: HSBC Future of Retirement Research 2009

한국인이 은퇴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재무 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경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인 응답자의 18%가 자신의 재무 상황에 대해 단기적으로 확실한 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응답자의 **12%**만이 자신의 재무 상황에 대해 장기적으로 확실한 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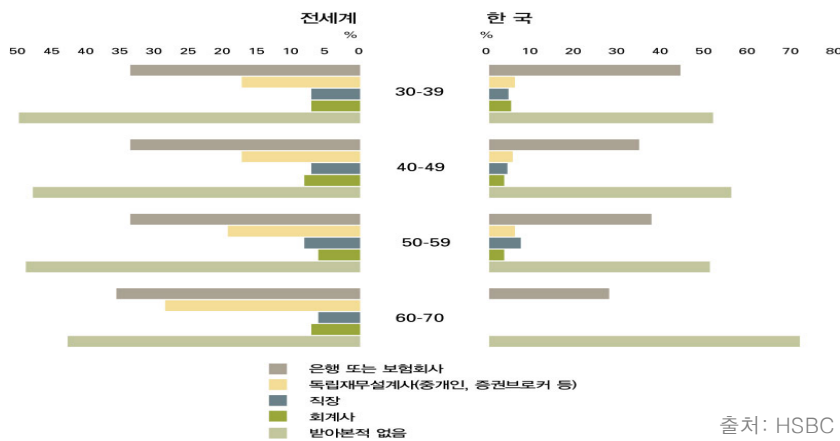
재무관리/경제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인구비율



출처: HSBC Future of Retirement Research 2009

은퇴 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개인의 재무 관리나 경제 관념에 대한 조언이나 교육의 부족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응답자의 **42%**가 재무 관리 및 경제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설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재무관리/경제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은 은퇴준비에 있어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들의 적절한 노후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경제 개념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 경제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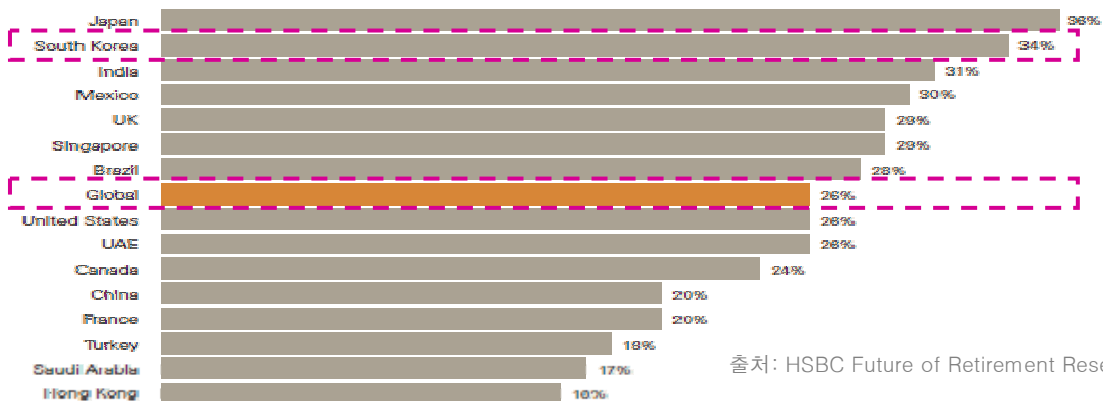
연령대별 전문적인 재무지원 제공 경로(글로벌)



출처: HSBC Future of Retirement Research 2009

세계인들은 은행과 보험회사를 통해 전문적인 재무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지원 제공 서비스의 경로로 은행과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기관의 신뢰성에 있었다.

신뢰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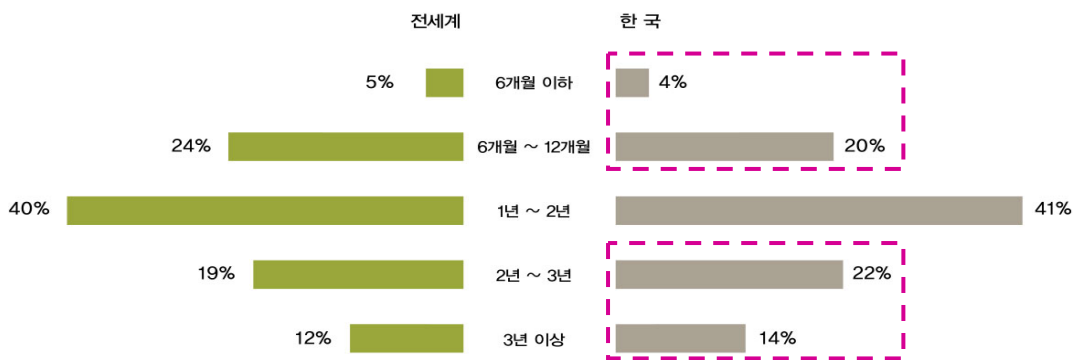


출처: HSBC Future of Retirement Research 2009

[참고] 경기침체에 대한 시각

세계인들과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경기침체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면,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관적이다. 한국인 응답자의 **24%**만이 경기 침체가 12개월 내로 끝날 것이라고 답한 반면, 36%의 응답자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이번 경기 침체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한국인 응답자들이 한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한동안 경기침체의 영향은 계속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일자리와 저축 및 투자에 미치는 여파가 지속될 것 같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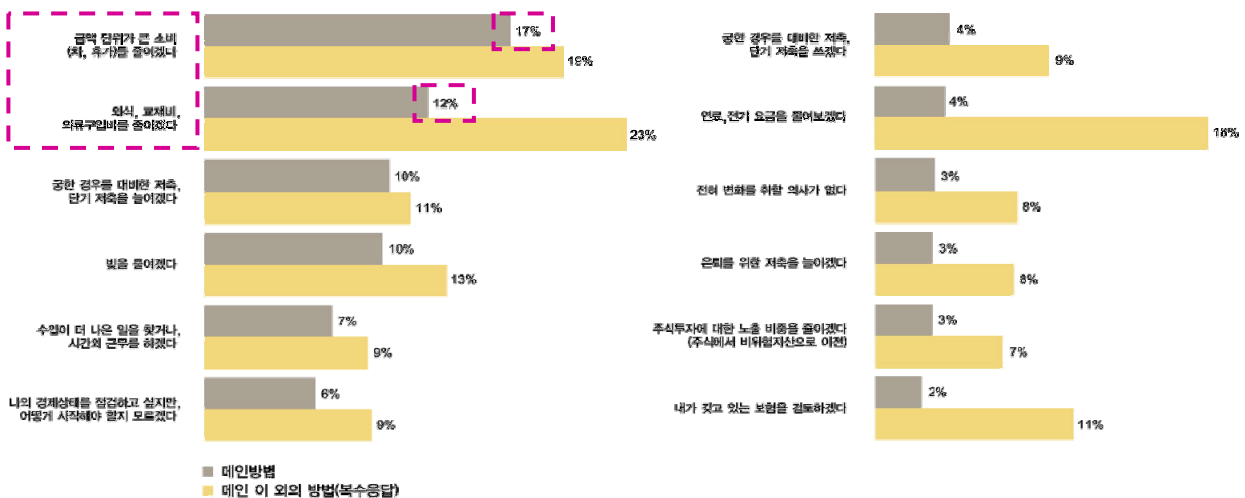
예상되는 경기침체 기간



출처: HSBC Future of Retirement Research 2009

경기침체 시 개인의 대처방안

이러한 경기 침체기에 살아 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대부분이 경비지출을 줄이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글로벌 수준과 마찬가지로 **29%** 정도가 크고 작은 구매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줄이는 것 또한 한국인들이 많이 고려하는 대책임을 알 수 있다.



출처: HSBC Future of Retirement Research 2009

결론

-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2050년 한국의 고령화 인구 점유율이 매우 높게 전망되었다.
-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세계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은 정년연장을 통해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하지만, 한국인들의 은퇴준비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준비부족의 이유는 장기적인 재무상황에 대한 이해와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전세계인과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재무교육이나 재무 및 경제관련 조언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며, 한편, 재무적인 조언을 받는 주요 경로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전세계인들과 한국인들은 앞으로 경기침체가 1~2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크고작은 소비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